

## 일본은행의 2010년 금융정책 운용방향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0.1%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등 초저금리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은행은 2010년도에도 강도 높은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 소비자물가는 2010년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나 고려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□ 일본은행의 경제전망

- 일본은행은 2010년 4월 30일, 「경제 · 물가정세의 전망」에서 향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을 발표
  - 2009년도 후반 이후 일본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신흥국 경제로의 수출증가가 최근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
  - 기업부문을 보면 기업수익이 증가했고 생산도 증가했으나 설비투자가 아직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 - 공공부문을 보면 공공투자는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공투자의 경기회복 기여는 전무한 상황

- 2010년 이후에도 신흥국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. 더구나 그 동안 감소세였던 설비투자가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
- 고용과 소득환경이 개선되면서 개인소비나 주택투자의 증가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
- 이러한 수요요인의 회복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도에 1% 후반대, 2011년에는 2% 전반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〈표1〉 일본은행 정책위원이 본 일본경제전망(2009-2011년)

	실질 GDP	국내기업물가지수	소비자물가지수 (신선식품 제외)
2009년도	-2.2 ~ -2.1 (-2.2)	-5.2	-1.6
2010년도	+1.6 ~ +2.0 (+1.8)	+1.1 ~ +1.5 (+1.3)	-0.5 ~ -0.2 (-0.5)
2011년도	+2.0 ~ +2.2 (+2.0)	+0.5 ~ +0.8 (+0.7)	-0.1 ~ +0.2 (+0.1)

주: ( )는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앙값

□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일본의 물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2011년도 이후에나 비로소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

○ 1990년도 후반 이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온 일본경제는 2007년도 이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듯했으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져든 상황

- 일본은행 정책위원들은 2009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.6% 하락할

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물가 하락세는 2010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

- 소비자물가지수는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도에 가서야 비로소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

□ 2010년도 일본은행 금융정책은 저금리 유지, 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, 인플레이 타깃 등 디플레이 극복에 초점

- 신흥국 등의 경기회복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상황이나 일본에서는 출구전략 논의가 아직 요원한 상황
- 오히려 현재 0.1% 정도의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금융완화책이 도입될 것으로 판단
- 이러한 금융완화책은 엔화 약세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해 일본경제의 회복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
-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은 해외수출시장에서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향후 증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

#### <참고자료>

日本銀行, 「經濟・物価情勢の展望(2010年4月)」